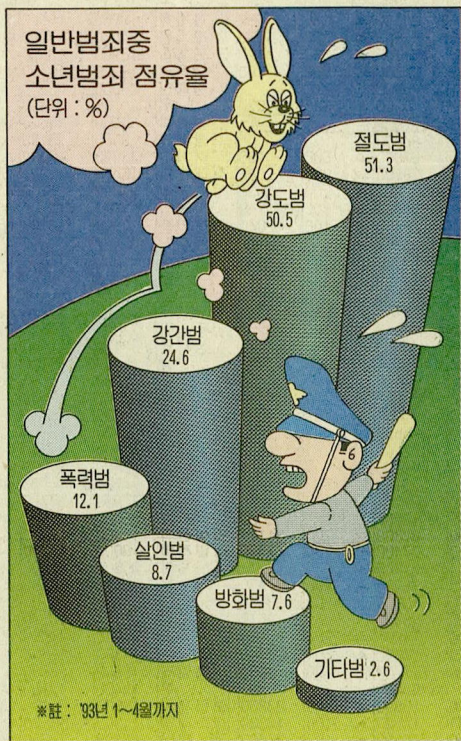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검거된 소년범(만12~19세)은 2만 9천 9백63명. 이중 절반가량이 18~19세이며 이들 10대 범인은 전체 범죄인의 6.7%나 된다.

그러나 전체 범죄중 강도범의 50.5%, 강간범의 24.6%가 소년범으로 10대의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함을 보여주고 있다.

범죄의 원인은 「우발적」이 42.5%로 가장 많고 「유혹비충당」이 두번째로 나타났다. 반면 생활비충당(1.4%)원한(1.2%) 가정불화(0.07%) 때문은 극소수였다.

박하고 있다.

기성세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은 신세대들의 비행은 우리사회변화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물결이 풍류해져서 폭력, 돈과性に 대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性は 무엇보다 큰 쾌락을 준다는 신세대』

나쁜일을 일면서도 자제력과 인내력이 없어 일단 저질러 버리고 만다. 그리고 나면 부모가 어떻게든 수습을 해주기 때문이다.

비행은 저지르고도 별로 죄의식을 갖지 않는 것이 신세대



버지는 善惡의 기준이 돼주지 못해 자녀의 비행을 부채질한다는 것이다.

우리사회 신세대비행의 결정적 원인은 대학입학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중입문(중우문)」에서 찾을 수 있다.

『중입문』 가정에서 부모의 기대수준은 높음 반면 학교성적이 그에 못미치는 청소년층의 비행발생률이 높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金俊鎬 연구실장은 학교에서 소외되고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이 자신을 따를진 세상에 대한 증오심으로 유혹되는 범죄를 저지른다고 지적했다. 조속한 개혁의 촉가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신세대범죄에 대부분 공범이 있는 것은 혼자 저지른 만 한 용기가 없다는 풀이도 된다.

남에게 못할 짓은 하지 않더라도 본인들 대인공포증을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신세대가 늘고 있다며 신경정신과전문의 金秉厚씨는 이렇게 말했다.

『10여년전 신세대에게서 놀이문화를 빼앗은 결과가 지금 나타나지도 모른다. 모래로 두꺼비집을 쌓았다가 허물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할 아이들을 학원으로, 전자 오락속으로 내몬 것이 누구입니까』

(金順德)

“용돈공해 代理 시험” 죄의식 희박 “法대로면 손해” 74% 정의감 약해

잡히기도 했다. 이철은 연인들(신용카드)도 8백여만원의치의 옷과 보석을 사며 희화라락거리다 중상을 당했다.

최근에는 서울論峴洞 빌라촌에 사는 중학생 3명이 저회를 도어엿한 자전거가 있으면서『재자전거를 가져보자』며 남의 것을 훔친 혐의도 붙들렸다.

良才洞빌라에 사는 또다른 중학생 2명도 도서관에서 공부할 하고 집에다가 집에 세워진 휴대전화기의 핸드폰을 훔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르기도 했다.

중산층 출신 고학력의 비중이 늘면서 범죄수법도 지능화하는 점을 세번째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지난 3월 집계된 대전경찰청의 「청소년범죄 분석」자료에 따르면 75년 71%에 불과했던 중산층 출신이 92년엔 17.8%로 늘었다. 학력수준도 고졸이 82년의 40.2%에서 91년엔 56.5%로 증가했다.

지난 2월 컴퓨터통신망을 이용하여 靑瓦臺를 사칭해 자료를 빼내려다 잡힌 사람은 23세인 신세대였다. IQ 1백40에 토를 성적 5백60점으로 자칭 「컴퓨터박사」인 그는 미국유학비를 마련하려고 컴퓨터기기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산층」자녀 많아

지난 20일엔 컴퓨터통신망의 「잡니다」판니게시판을 통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 21세의趙모씨(大邱壽城구)가 붙잡혔다.

그는 「컴퓨터를 사게 판다」고 속여 5백00원부터 5백만원까지 사취한 뒤 하이텔화면에 「내가 저지를 일은 모두 자기니 돈을 되찾을 생각은 아예 말라」고 띄우는 뽀빠스리들까지 보냈다고 한국P.C통신은

“돈이면 모두 해결” 가치관 혼란



매주 한번씩 서울보호관찰소를 찾아 비행청소년들과 상담하는 金根廷씨(연세대 사회사업학 4년)는 『그들을 환경과 사회의 희생자로 여긴다』고 했다.

『가정불화와 성적부진으로 집에서 학교에서도 마음불이치 못했던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불잡힌 경우.

『집과 학교가 싫어 가출했다면 왜 공장에 취업해 떼떼하게 돈벌지 않았느냐』고 질문하자 내담자는 『공장에 가도 어차피 사장이나 반장에 게 당한다더라. 그럴바에야 쉽게 돈벌지 못하러 고생하느냐』고 반문하더라고 했다.

것을 알아버렸으니까요』

심리학자인 張秉琳씨에 교수(서울대)는 『모든 것이 풍족한 신세대가 비행을 저지르는 것은 『언제나 쉽게 충족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가난을 알고 경제성장을 이른 부모세대는 자식이 사달라는 것은 무엇이든 사주며 살았다. 그래서 신세대는 참고 기다릴 줄 모으며 충동적이 되었다. 부모의 열매를 따먹으며 쉽게 살았던 신세대는 더욱더 편하게 살기를 원한다. 범죄가

의 특징중 하나다. 전통적인 효 사상 기성의 권위에 대한 반발이 있는데다가 『어른들도 정의롭지 못하므로 신세대가 굳이 깨끗할 필요가 없다』고 여긴다.

이유 없는 犯罪 늘어

경찰청의 李東憲(법치지도과장)는 『잘못을 지적해주는 아버지의 권위가 없는 가정에서 비행 신세대가 나온다』고 말했다. 일에 바쁜 아버지조차도 밖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는 아

『신세대는 퇴폐적 향락적인 대중문화와 숨가쁘게 돌아가는 산업사회의 모순, 과중한 대입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행이 과연 그들만의 책임일까요』

金씨는 신세대의 비행은 그 사회구조의 반영에 다름아니라고 강조했다.

“非行소년「환경」의 희생자”

서울보호관찰소 자원상담원 金根廷씨

金씨는 개선가능한 범죄자를 소년원 구치소 등에 수용하는 대신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에 적응토록 돕는 「보호관찰제도」의 대학생 보호위원. 전공과목인 사회사업학의 실습을 겸하고 있다.

그가 상담하는 18세의 한 여성내담자는 가출후 성폭행을 경험하고 자포자기 끝에 매춘을 하다

『신세대는 퇴폐적 향락적인 대중문화와 숨가쁘게 돌아가는 산업사회의 모순, 과중한 대입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행이 과연 그들만의 책임일까요』

金씨는 신세대의 비행은 그 사회구조의 반영에 다름아니라고 강조했다.